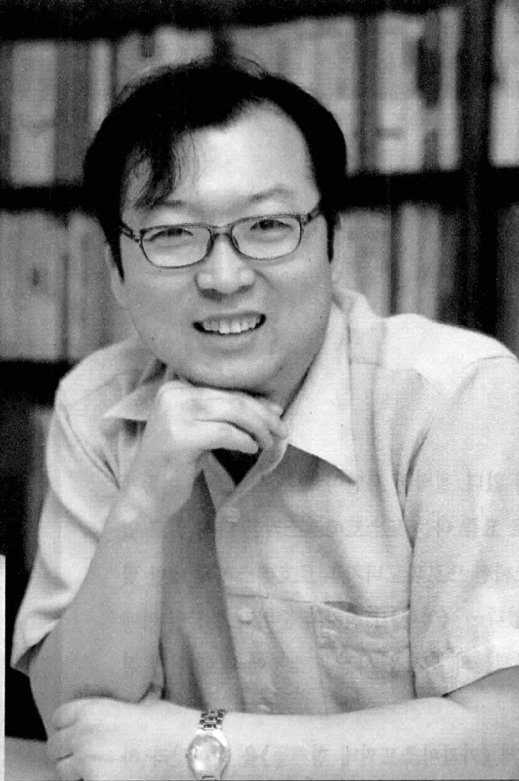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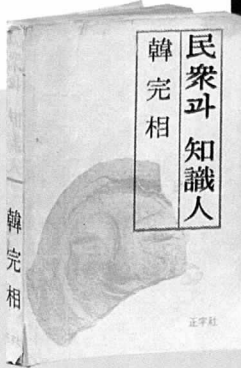


지식인의 역할 깨우쳐 준 정신의 '호신부'

문학평론가 고명철씨가 뽑은
한완상의 《민중과 지식인》



“즉자와 대자 개념을 비평대상 또는 나 자신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나르시시즘에 빠진다는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사고와 글쓰기에서 구심력과 원심력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학평론가 고명철씨(30)에게 한완상의 《민중과 지식인》(정우사)은 ‘호신부’ 같은 책이다. 몸에 지니고 다니지는 않지만, 생각이 어수선했 때 서가에서 꺼내드는 책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이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문학비평계의 이른바 ‘4·19세대 논쟁’의 전개양상이 못마땅해서다.

“논쟁에 끼어든 지식인들이 너무 지엽적인 것 같습니다. 좀더 폭넓은 관점과 냉철한 사고가 아쉬웠습니다.”

이런 생각의 근거에는 《민중과 지식인》에서 흡수한 지식인관이 자리하고 있다. 지식기사와 지식인을 대비한 대목에서 자본주의가 지식인에게 전문성을 강요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즉자적 민중과 대자적 민중을 비교한 대목도 인상적이었다.

“즉자와 대자 개념을 비평대상 또는 나 자신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나르시시즘에 빠진다는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사고와 글쓰기에서 구심력과 원심력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명철씨는 문학에 뜻을 둔 후배들에게 이 책을 권하곤 한다. 현실문제에 그다지 관심 없는 문학지방생들의 세태가 못내 안타까워서다. 그런데 반응이 의외로 좋은 편이다.

“꽤 진지한 반응을 보입니다. 지식만 쌓아서 안되겠구나 하는 자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평이한 문체로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사회에 사는지 비판적으로 통찰할 기회를 제공해서겠지요.”

고명철씨는 이 책을 1990년 겨울에 만났다. 대학 1학년 겨울방학 때 고향인 제주시의 단골 헌책방에서 책을 고르다가 눈에 띄었다. 지은이의 이름은 재수생 시절에 들어 알고 있었으나 책을 대면한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이 끝물을 타던 시기였지만 ‘민중’ 개념이 궁급해 책을 구입했다. 고씨가 소장한 《민중과 지식인》은 초판본이다. 여러번 읽은 흔적이 있는데도 보관 상태가 양호했다.

그런데 고명철씨의 서가에는 《민중과 지식인》의 맞수가 한권 있다. 현기영의 소설집 《순이 삼촌》(창작과비평사)이 그것으로, 고씨는 막판까지 두권을 놓고 고심했다. 비슷한 시기에 읽었지만 《순이 삼촌》의 독서 계기를 《민중과 지식인》이 제공했으므로 한완상의 책으로 낙착을 봤다.

고명철씨는 1998년 《월간문학》 평론부문 신인상을 받으며 데뷔했고, 《비평과 전망》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부인의 수중분만을 거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최성일 기자

열린 마당

가장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 ① 출판의 승부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 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 ②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③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표지·광고·팸플렛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원고작성·번역·편집·디자인·제작代行

110-121 서울 중로구 중로1가45 서울빌딩 601호
전화: 739-0150(代) 팩스: 739-0160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제판·인쇄·제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삼덕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121 서울 중로구 중로1가45 서울빌딩 601호
전화: 739-0150(代) 팩스: 739-0160
인쇄·제본공장: 465-4707(代)